

민·관 합동 K-푸드 수출기획단, K-푸드 글로벌 도약 밑그림 그린다

- 제1차 K-푸드 수출기획단 회의에서 권역별 전략품목, K-푸드 대사 선정·운영 및 2026년 관계부처 수출지원 계획 등 설명·논의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2월 4일(수) 오전,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1차 ‘K-푸드 수출기획단(이하 수출기획단)’ 회의를 개최하였다. 수출기획단은 지난해 글로벌 K-푸드 비전 선포식(12.23)에서 발족된 민·관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각 7명, 수출·콘텐츠·물류 업계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29명이 참석하였다.

회의 안건은 ▲권역별 전략품목 선정(안), ▲K-푸드 대사 선정·운영계획(안), ▲부처별 2026년 K-푸드 수출지원 계획 등 총 3개였으며, 수출기업, 문화·관광·콘텐츠, 물류, 관세·비관세 등 K-푸드 수출 관련 분야 현장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.

권역별 전략품목(안)은 전반적인 K-푸드 수출규모 확대와 수출품목 및 시장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주 목적으로 하며, 민간위원의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권역마다 3개 내외의 전략품목*이 제시되었다. 선정 기준으로 최근 수출 및 현지 시장 동향, 제품의 경쟁력 또는 성장 잠재력 등이 고려되었으며, 그 외에도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전통주와 최근 5년 내 검역이 타결된 품목 등을 고려하였다.

* 미국(김치), 중국(이너뷰티, 단감), 일본(참외), 중동·아세안(할랄), 유럽(비건) 등

K-푸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‘K-푸드 대사’ 선정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 K-푸드 대사는 K-푸드 수출 거점 재외공관, 수출기업 등의 추천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될 계획이다. 주요 권역의 인플루언서 선정 절차, 방식 및 주요 홍보 행사 참석, 홍보 콘텐츠 출연·제작 등 온/오프라인 주요 활동을 논의하였다.

‘2026년 K-푸드 수출지원 계획’의 주요 내용으로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K-푸드 수출 거점 재외공관, 한류 연계 마케팅, 콜드체인 해외물류센터, 위조상품 유통 대응, 해외 인증 취득 지원 등을 설명하였다. 각 부처는 공공 외교사업 연계 홍보(외교부), 수출바우처(산업·중기부), 식품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(중기부), 해외 규제정보 제공 및 글로벌 규제 협력 강화(식약처), 위조방지·식별 기술 개발(지재처), K-푸드 주요품목 전용 HS코드 신설(관세청) 등의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.

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“K-푸드 수출 전략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민·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 부처와 기관의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.”고 하면서 “농식품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구축한 ‘K-푸드 윈스톱 수출지원허브’를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되고, 각 부처의 수출지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·추진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	책임자	과 장	강효주	(044-201-2171)
		담당자	사무관	강태원	(044-201-2172)